
2021년 2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

2021. 3.

< 조사개요 >

1. 조사명

- 「2021년 2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」

2. 조사 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3. 조사 기간: 2021. 3. 4. ~ 3. 25.

- 조사표 발송 및 회수: 2021. 3. 4. ~ 3. 12.
- 분석 및 보고서 작성: 2021. 3. 16. ~ 3. 25.

4. 조사 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(유효 응답 업체 250개체)

5. 조사 방법

-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6. 조사 내용

- 전반적인 체감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- 최근 경제 및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

7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.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8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$$\text{기업경기전망지수}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 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 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 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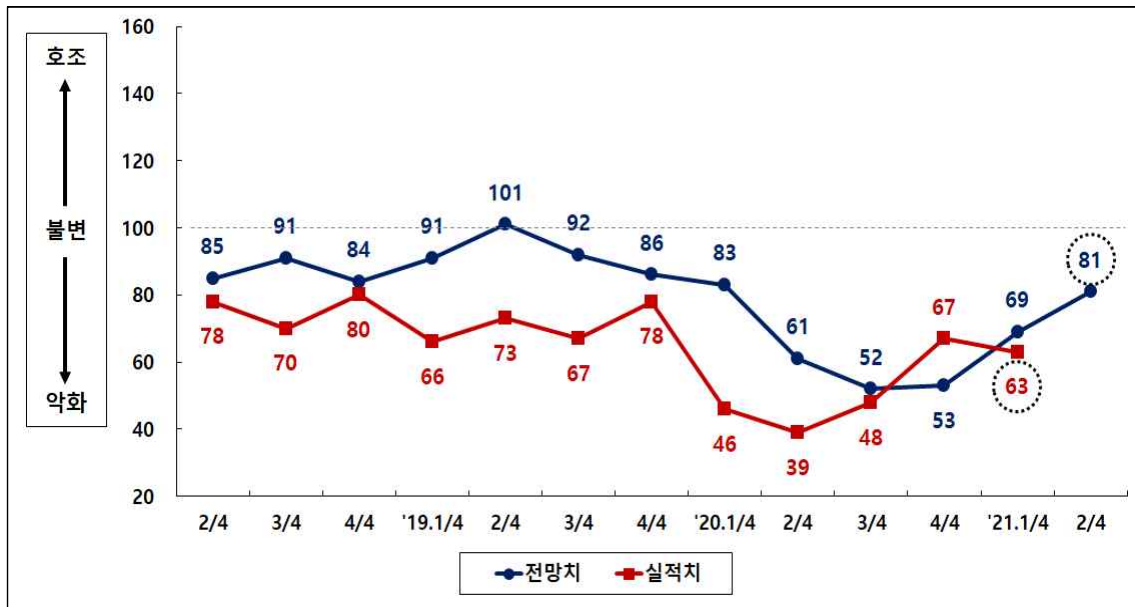
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

1. 전반적 경기 전망

□ 제조업 BSI 전망 81, 위드코로나 지속중인 가운데 주요국 경기회복 및 백신접종 개시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1년만에 최고치 기록

- 2021년 1/4분기 69 → 2021년 2/4분기 81 (전분기 대비 12p 증가)
 -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, 국내·외 백신접종 개시 등 각종 호재로 경기회복 및 생산 활성화 기대 반영
 - 한편 코로나19 감염 재확산과 더불어 주요 제조업 침체 및 내수부진,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 우려는 여전히 존재
 - 자동차,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의 수출량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가 컸으며, 관련 제조업 매출 증대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
- 2021년 1/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는 63 기록 (전분기 대비 4p 감소)

〈분기별 BSI 실적 및 전망 추이〉



□ 응답기업, 경기 불변에 무게

- 전체 응답 업체 분포를 보면 경기가 2021년 1/4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7.2%(143개사)인 가운데 경기악화를 예상한 업체가 30.8%(77개사), 경기호전을 예상한 업체가 12.0%(30개사)로 경기 호전보다는 불변에 무게가 실렸으며, 악화 예상 업체 또한 존재

〈2021년 2/4분기 경기전망 응답 분포〉

구 분	호 전	불 변	악 화	계
응답업체수(개사)	30	143	77	250
구성비(%)	12.0	57.2	30.8	100

2. 경영 부문별 전망

□ 매출, 영업이익, 설비투자, 자금조달 여건 등 전 부문에서 100 하회

- 매출(81), 영업이익(83)
 - 확산세 둔화 및 백신접종 개시로 코로나19 사태 종식 기대감이 커졌으며 수출 또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재확산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며 글로벌 경기 및 국내 주력산업의 단기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
 - 내수 침체 및 소비심리 둔화로 인한 매출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설비투자(92)
 - 위축된 경제상황으로 사업계획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투자전략 변화 기대
- 자금조달여건(82)
 - 정부주도로 시중은행의 대출 확대, 만기연장 및 금리 인하 등 각종 자금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, 매출 부진 및 원·부자재 가격 상승 등 자금수요 증가로 인해 전반적인 자금조달여건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

〈부문별 BSI 변화〉

구 분	실 적		전 망	
	‘20.4/4분기	‘21.1/4분기	‘21.1/4분기	‘21.2/4분기
체감경기	67 →	63	69 →	81
매출	70 →	66	63 →	81
영업이익	70 →	66	64 →	83
설비투자	103 →	87	100 →	92
자금조달여건	80 →	76	77 →	82

3. 주요 업종별 전망

□ 음·식료품을 제외한 섬유, 의복, 신발, 화학·고무, 1차금속, 기계·장비, 자동차·부품, 조선기자재 등 대부분 업종에서 경기 부진 전망

· 음·식료품(127)

-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각종 사적모임 및 행사 재개되며 매출 증가 기대
- 또한 3월 정상등교 개시 결정으로 급식 식자재 매출 회복 전망
- 일부기업 온라인 유통채널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감소한 매출액 보전

· 섬유(40) / 의복(93) / 신발(73)

- 지속된 소비심리 침체에 따른 내수시장 부진으로 원단 수주 감소 지속
- 한편 계절적 성수기와 더불어 백신접종 개시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의복·신발 수요 회복 전망

· 화학·고무(78)

- 전방산업 침체 및 글로벌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지속
-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도 업황 회복까지 시차 지연으로 현 상황 장기화 예상

· 1차금속(92)

- 중국 철강가격 상승을 필두로 국내외 철강가격도 상승 추세이나 수요기업과의 시차 존재하는 상황
- 일부기업 전방산업 회복에 따른 대내외 수주량 증가 기대

· 기계·장비(72)

- 자동차, 운송장비, 건설기계, 조선 등 연계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 및 영업이익 감소세 지속

· 자동차·부품(60)

- 신차효과로 인한 내수판매 호조와 르노삼성자동차의 유럽 수출물량 확보, 해외 수출량 증가 등 최근 업황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반도체 공급 차질, 쌍용자동차 구조조정,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분쟁 장기화 및 부산공장 수익성 개선 압박 등 각종 악재로 지역 부품업체 매출 타격 심화

· 조선·기자재(87)

- 대형조선사의 잇따른 선박 수주와 더불어 선박수리시기 도래 등 계절적 성

수기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발주까지 시차 발생으로 단기적 업황 회복 기대 어려운 상황

〈주요 업종별 BSI 변화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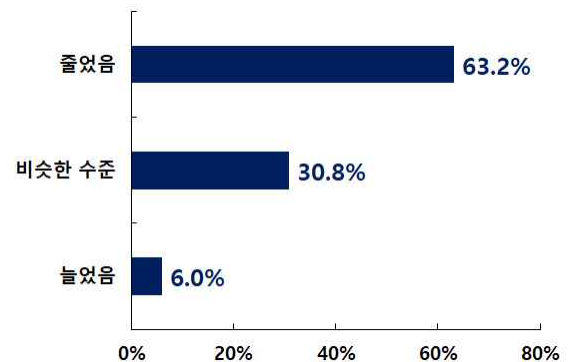
구 분	실 적		전 망	
	‘20.4/4분기	‘21.1/4분기	‘21.1/4분기	‘21.2/4분기
음식료품	59 →	93	59 →	127
섬유제품	60 →	60	60 →	40
의복·모피	47 →	53	47 →	93
신발제품	27 →	67	53 →	73
화학·고무	68 →	83	92 →	78
1차금속	68 →	80	80 →	92
조립금속	60 →	65	70 →	85
전기·전자	60 →	65	100 →	85
기계·장비	81 →	40	50 →	72
자동차·부품	88 →	60	78 →	60
조선·기자재	81 →	40	67 →	87

4. 기타 경영사항

□ 2020년 영업이익

- 응답업체의 63.2%, 2020년 영업이익 코로나 이전 대비 감소
 - 2020년도 실적(영업이익)이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(2019년)보다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이 63.2%(158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0.8%(77개사), 늘어난 기업이 6.0%(15개사)로 나타남

〈코로나 이전 대비 영업이익 변화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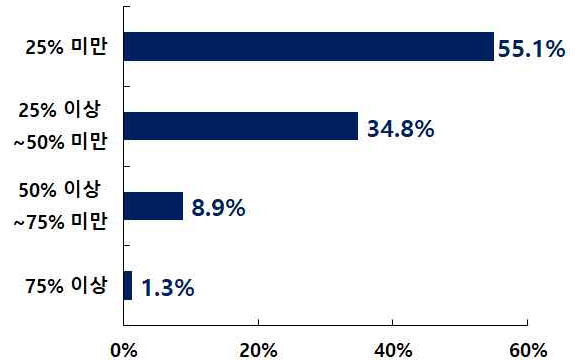


- 감소응답 158개사 중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 실적 대비 25% 감소
 - 코로나 이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의 감소수준은 25% 미만인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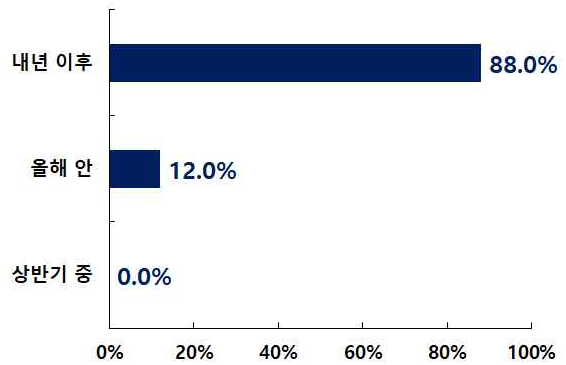
이 55.1%(87개사), 25% 이상 75% 미만인 기업이 34.8%(55개사), 50% 이상 75% 미만인 기업이 8.9%(14개사), 75% 이상인 기업이 1.3%(2개사)로 집계

- 감소응답 158개사 중 대부분 내년 이후에나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 - 실적이 감소한 158개사 중 88.0%(139개사)는 코로나 재유행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, 내년 이후에나 코로나 이전수준의 실적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, 올해 안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2.0%(19개사)에 불과하였으며, 상반기 중으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무

<영업이익 감소수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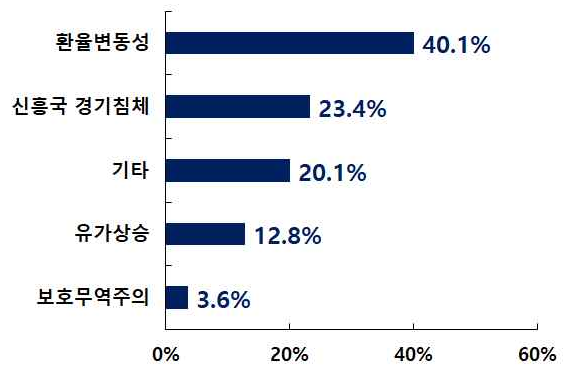
<실적 회복 시점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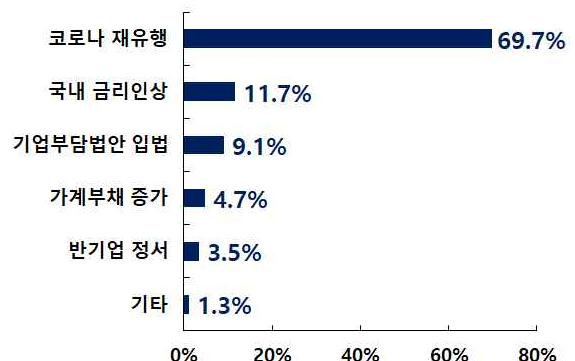
□ 2021년 대내·외 리스크

- 2021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대외 리스크는 ‘환율변동성(40.1%)’
 - 이어 신흥국의 경기침체 23.4%, 유가 상승 12.8%, 미-중 무역갈등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 3.6%, 기타 20.1%로 집계
 - 기타 전망되는 대외 리스크로는 코로나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응답
- 예상되는 가장 큰 대내 리스크는 ‘코로나 재유행(69.7%)’

<대외 리스크(복수응답)>



<대내 리스크(복수응답)>



- 이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이 11.7%, 기업부담법안 입법 9.1%, 가계부채 증가 4.7%, 반기업정서가 3.5%, 기타 1.3%로 집계

□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·산업·사회 변화에 대한 견해

- 지역기업의 60.8%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·산업·사회 전반에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체감
 -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·산업·사회 전반의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며 IoT 등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개발 및 사용이 활발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- 국내 소득 양극화 심화의견 68.8%인 반면, 완화의견은 전무
 - 코로나19가 불러온 각종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 매출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, 소득분배를 위해 정부주도 하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경기진작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
- 대부분의 기업은 선진국-우리나라 기업 간 기술 격차 및 중국 등 신흥국 간 기술 격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
 - 글로벌 경기침체 및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, 소극적인 설비투자 및 R&D투자로 기술격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임

〈코로나19로 인한 경제·산업·사회 변화〉

(단위: %)

구 분	증가/심화	불변	감소/완화
4차 산업혁명·디지털 전환 속도	60.8	34.0	5.2
국내 소득 양극화	68.8	31.2	0.0
선진국-우리나라 간 기술격차	13.2	81.2	5.6
중국 등 신흥국 기술 추격 속도	8.4	91.6	0.0